



우리 생활 그 자체, 자기 움죽거리리는 그 자체, 모두가 참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릴 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이 있어서 지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다음서부터는 간단히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것은 우주의 모든 근본 자체가,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바로 우리 마음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의 살림살이는 우리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이 종교다 저 종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위안하고 그러기 위해서지,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를 발견해서 우주의 모든 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는 진리를 실험하고 바로 체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 있으니까요.

불(佛)이란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되고, 교(敎)란 우리가 서로 있고 말을 하는 것을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 뜻이죠. 그럼으로써 저 나무 하나, 저 풀 한 포기, 저 꽃 한 송이,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이번에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 보니 너무도 볼길이 활활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살아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 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는 그 불을 영원한 불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든지 그 믿는 것은 탓 안 합니다. 단,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이 진리는 꼭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그냥 갈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물만생이 그렇게 직결돼 있는 근본, 바로 여러분의 주처인 것입니다. 불가(佛家)에서의 본래자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처인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독교 가톨릭교 믿는 분들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이고 바로 내 믿이 되는 것이며, 내 믿음 모두, 일체가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이런 상표 하나 붙여 놓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은 좀 속이 넓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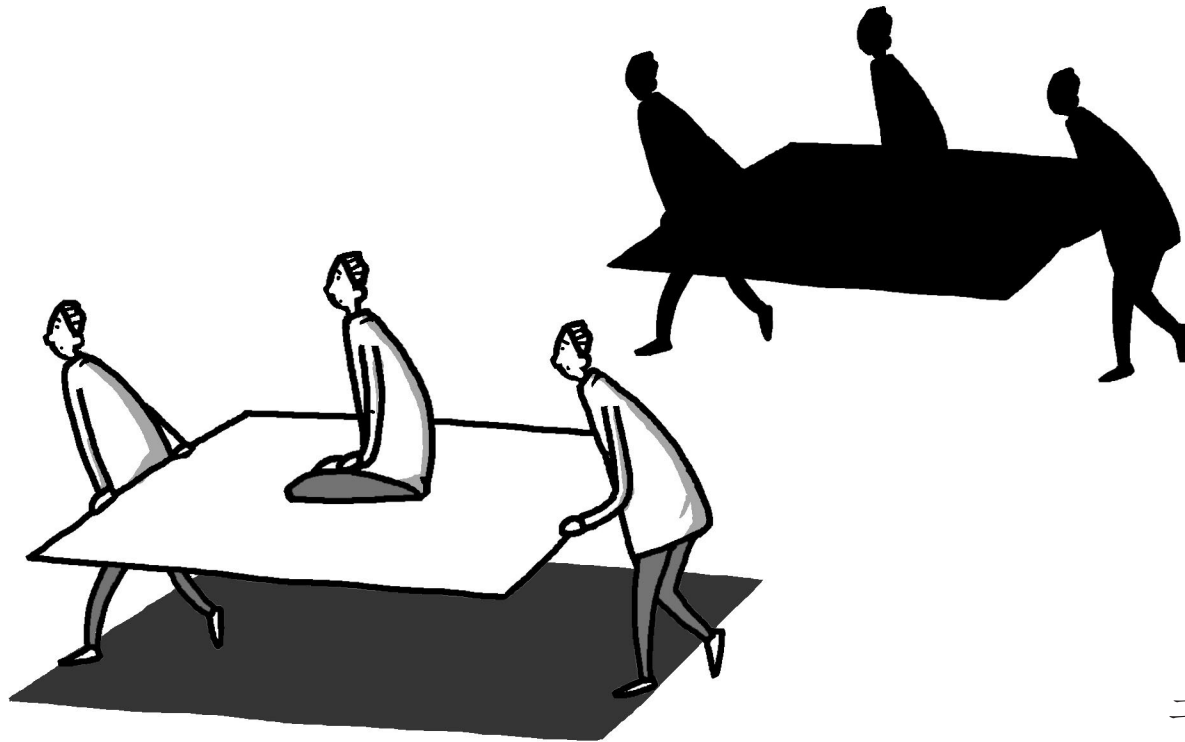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 한 국민으로서 여기 타관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니만큼, 종파를 초월해서 한인으로 우리가 서로 단결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어 가면서 뭉쳐야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우리 한인 동포는 어찌해서 한마음으로 단결이 안되고 뭉칠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게 단결이 되지 않고 제가 곱들 헤어질까.' 하는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재료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과거에 살던 그 영혼이 바로 지금도 현재의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도 모두,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남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色)이, 이 물질이 공해서 그렇게 나투어 돌아가고... 그 공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하는 걸 색(色)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려면 과거에 살던 부(父)

와 지금 현세의 내 마음, 그 자(子)와 만남이 있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은,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그저 어떡하다 보니까 산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묘지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젠 아버의 묘지, 이젠 자식의 묘지 이렇게 놓고 '이게 구멍이 뚫렸는데, 네가 생각을 내고 일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되고 또는 생각을 하질 않고 고요하게 할 때는 바로 부로 하나가 되느니라. 이런 연고는 무엇인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대답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흘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대답을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모두가, 영을 만 개를 그려 놔도 한 개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체가 없을 것이고 자의 마음도 체가 없으니,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자로 하나가 될 것이고, 일을 안 할 때는 부로 하나가 되니 이렇게도 하나 저렇게도 하나,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푹 떨어

지고 엉덩이가 푹 떨어졌지만 다리가 굳어서 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 자체가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여러분이 푹 누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한 치도 틀림없이, 일 초도 어김없이 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남악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아무리 틀고 앉아 있는데 좌선만 한다고 네가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앞에 가서 싹씩 갈고 있었습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 시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기왓장은 갈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다." 하니깐 "아니, 스님도 망령이 나셨소?"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거울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자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틀고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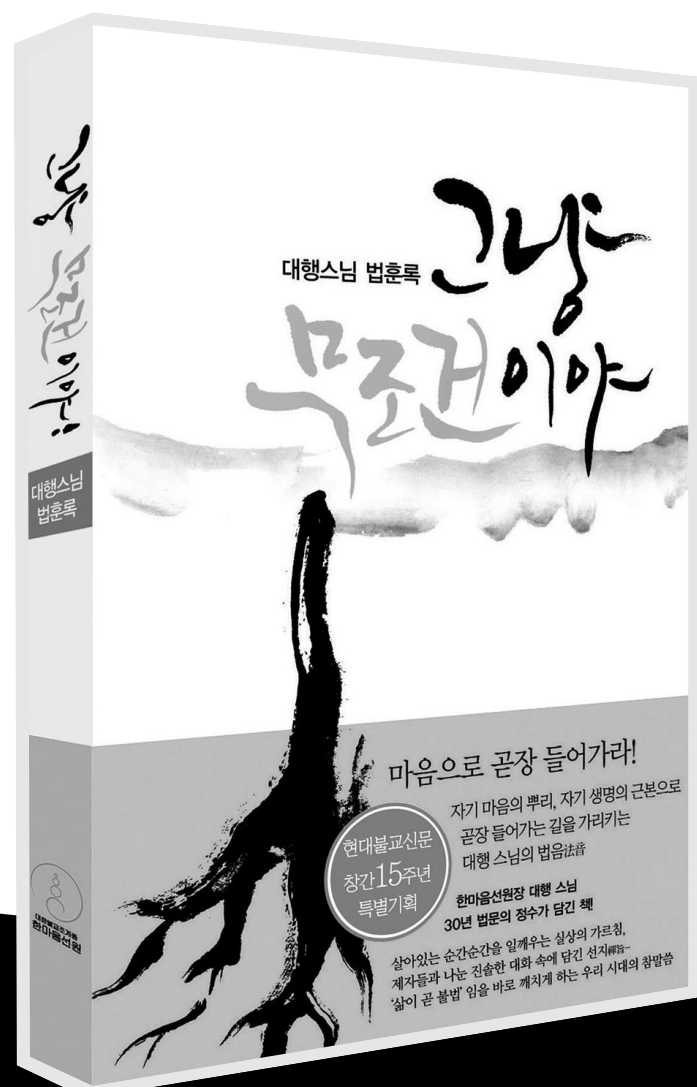
고 물었습니다.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다." "네가 부처를 이루려면 오줌이 마려워도 일어나지 말고, 먹을 때도 일어나지 말고, 아예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선이 되는 거지 어떻게 선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는 생활 그 자체, 자기 움죽거리리는 그 자체, 자는 자체, 앉는 자체, 서는 자체 모두가 참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마조도 깨달았고 그렇게 모두가 통달이 돼서, 즉 말하자면 구경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림을 하는 여러분도,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꼭 기록으로 가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느 스님님이 저더러 이렇게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신 짓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을 것이고 귀신 짓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상을 걸어 놓고 해도 그렇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해도 그렇고, 그건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죄업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도 '부처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복으로 아무 리 해도, 밥을 아무리 올려놓고 빌어도 그것은 절대로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부터 전화통을 뉘야 남의 전화통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거고 나로부터 바로 상대성 원리가 생긴 것이지 내가 없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의, 사대 성인들의 그 마음의 속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살이 살림살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살림살이의 모든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천하고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즉 말하자면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두루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그 마음, 한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묘한지, 빛보다 더 빠르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러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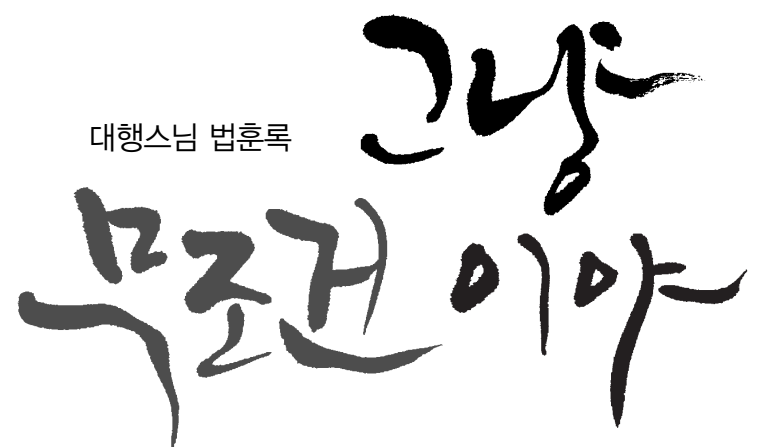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29면에서 계속

분의 주체입니다. 그 보배를 믿지 않고 그렇게 타의에서 구하는 그런 행을 하신다면 우리가 불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정진계로 치닫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아마도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 다리 걸쳐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쓰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컴퓨터가 아마 그대로 조절을 할지도 모르죠. 그 도리가 그대로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셨고, 또는 사대 성인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편지를 잘못하고 인식을 잘못하고 그래서 모두 같라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는데, 옳다 그르다가 붙는다면 이 진리를 실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체험도 못합니다.

자기를 놓고 자기가 볼 때에, 보십시오. 이 몸통이 속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간편히 생각한다 해도 13억이나 16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또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의식 하나가, 무의 세계의 무심 도리를 생각한다면 그 의식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두루 할 때, 바로 분자로 화해서 모든 내 털구멍을 통해서 인간도 모두, 지구의 대기처럼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책정하는 소임을 갖고, 한쪽은 통신하는 소임을 갖고, 한쪽은 들이고 내는 데 작업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몸통이 어느 것도 바로 3미터 이내로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성이 아주 그대로 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땅에다 발을 붙이고 모두 있는 것이죠. 그러고도 또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유전성 또는 업보성 인과성, 이 모두를 커버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편히 걸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가는 거를 보십시오. 쪽쪽 굴러서 가죠? 그게 왜 쪽쪽 굴러서 갑니까? 그냥 쪽 쪽, 그 생명이, 그 의식들이 얼마나 이 허공에 딱 찰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압력을 받아서 터질까 봐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세계에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온 거는 과거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현실에 그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을 다시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서 과거에 입력된 것이 바로 소멸되는 거죠. 그 앞서 더불어 우리가, 말하자면 지수화 풍이 것이, 바람과 흩날라 불과 물, 이 네 가지가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은 전

부 다 그렇게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그 바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료를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있는 거 때문에, 바로 불가에선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려면 컴퓨터는 속명통, 무전통신기는 천이통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명통 천이통 신속통 타심통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누진으로다가 굴린다 이렇게 불가에서 말을 합니다. 그거를 레이더망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곗말로 말을 하자면 컴퓨터 탐지기 찍시밀리 또는 무전통신기 천체망원경,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 몸에서, 벌써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책정하고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소임을 다 맡아 가지고 누진통에서 통

살이, 농사짓는 거 효도하는 거 충성하는 것을 다 가르쳤고, 그다음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한데 합쳐서 모두 중용을 하는 것을 가르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또한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극하게 몸을 던지면서까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실천과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천만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의 세계의 무심 도리를 모르신다면, 50%의 유의 세계의 물질세계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앞으로 점점 살기는 희박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종교다 무슨 종교다 이거를 갖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렇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거 아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 나 아님이 없고 내 아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는 그 도리.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할 텐데 그걸 말만 들어서 알지 직감적으로 내가 느껴 보지 못했고, 그것

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뭇을 할 때,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한꺼번에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때 비로소 참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참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면서 제도하며 바로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영력을 키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해야 여러분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런 교를 비방하고 저런 교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부 생명이 다 똑같고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비방을 하고 그런 자는, '아유, 저런 사기꾼. 저런 건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차에 깔려 죽고 '아유, 저분은 참, 이 세계의 왕 같아.' 하고 생각을 한 사람은 진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데에 구멍이 빠질 수도 있고, 구멍이 빠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한마음의 보배는 뭘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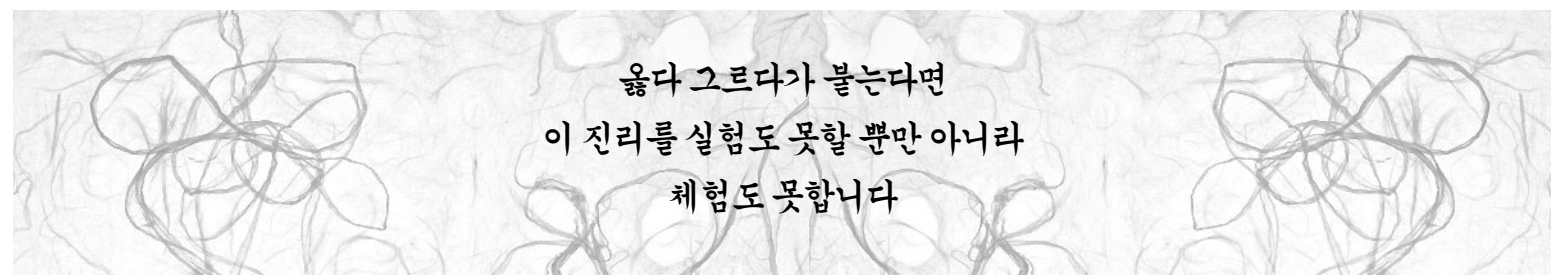
이게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가설입니다. 그렇게 가설이 돼 있는데 내 마음의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아닙니다. 영, 영, 영 해도, 만 개를 그려 놔도 둘이 아닙니다. 공했습니다. 그러니 그 스위치, 자기 주인공에 맡기면서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까 한마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지.' 하고 믿을 때, 뭐든지 용도에 따라서 거기 맡겨 놓을 때 기쁘고 믿는 사람은 정말 하늘을 맞볼 것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참자기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부(父)의 자리이니 바로 자와 부가 만남이 있어야 진짜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불교에도 장자 설법이 있는가 하면 부자 설법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내 종교다 내 종교다 하는 거지, 진리를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둘이 아닌 깨달이죠.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만약에 없다면 높은 산이라는 언어가 거기 붙어 들어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산도, 보십시오. 고목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시퍼렇게 정정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물도 흐르고 짐승도 살고 모두 이리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아주 그것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회상해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다가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차릴 때 종지가 없으면 간장을 못 담듯이, 하나도 틀리게 없어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병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업보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업보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모가지 딱 매서 그렇게 올라가며 씩씩하 속들이 시원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비행기가 지금 떠서 프 로펠러가 사정없이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상을 치시며)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너무 길게 여러분을 지루하게 해서, 지금 이쯤 해 놓고 어디 여러분의 질문을 좀 들어 보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옳다 그르다가 붙는다면 이 진리를 실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체험도 못합니다

신을 하면 이 사대(四大)에 다 통신이 됩니다.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이 내부에, 사대에 다 통신만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내 몸에서 전 부가 공장으로, 아니 세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위 공장이나 장 공장이나 식도 공장, 심장 공장, 소장·대장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이 모든 공장이 만약에 한 군데만 마비가 돼도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 몸이 망가지는 거, 이 몸이 회사라면서.

그러면 회사 직원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집은 바로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입을 통해서 먹어 주고 움직여려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자라고도, 이 불가에선 시자라고도 할 수 있죠. 몸통이 내가 아닙니다. 나를, 몸통이를 이끌고 다니는 참나 자체, 주체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천주교에 입교해서 다닐 때 고해 성사를 해도 그렇고 아니, 내가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주님' 한다면 꼭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라 천체가 하나도 돌아가는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엔 단군이 그 모든 살림

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가 터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할 수 못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억억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쫓고 쫓기면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났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안 돼 본 게 없고 자식도 안 돼 본 게 없고 형제도 안 돼 본 게 없으니, 그걸 비유할 때 '야, 우리 가정만 내 부모 내 자식이 다른 건 쓸데없다.' 이러지마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는 역경을,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많이 자식이 됐고 부모가 됐었나. 형제가 됐었나.

우리가 뜬구름이 한 무더기 모였다가 그것이 헤어지면 판 구름끼리 또 모이고 이러듯이, 한 생 살면서 몸을 벗으면 벗는 대로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아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너희들 모두가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뿐만 아니고 또는 가톨릭교뿐만 아니고, 불교든 어떤 교를 막론해 놓고 다른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의 물리가 터진다면, 증득한다면 바로 부와 자의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네 씨가 너에게 들어 있는 줄 알

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이 몸통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나든 어떠한 문제가 되든, 가난하든 남하고 싸움이 생겼든 또는 뭐가 벌어졌든,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벌어졌든 얼마나 천차만별로 많습니까. 자식을 기르는데 공부를 안 한다거나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방지하십니까? 말로만, 그리고 돈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주처에 맡기고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 다 맡기고, 거기서부터 해결 못한다고 믿을 때, 물러서지 않을 때 바로 그건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가설이 돼서 불이 들어오듯, 내 한 가정이라 하면 부모가 자식인 줄 알고 자식이 부모인 줄 알고 형제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기 때문에 자식인 줄 알고 부모인 줄 안다. 이것이 가설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쪼그렇게 따진다면 한 가정에서

※ 위 법문은 1991년 3월 31일 시카고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면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면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해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범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점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합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신참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정장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4륜구동 강력한 파워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동소 KW-BS200

“전문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재수 운반 / 고소 연동 설치

전차보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재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
5. 소음 걱정 끝~!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감만로 82-6(감만동 887-160번지) www.kw-tec.co.kr